

국내 대학 교양교육 관련 뉴스기사 토픽 분석

전 은 정*

목 차	
I. 서 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 론
III. 연구방법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 관련 뉴스기사의 토픽을 분석하고 시간 흐름에 따른 토픽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대학 교양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23년까지의 관련 뉴스기사 240건을 대상으로 LDA 토픽모델링을 통해 10년 단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0년대 토픽은 ‘대학 교양교육 부실 지적, 교양과목 다양화, 해외 대학 교양과목 국내 이수제도 마련’, 2010년대 토픽은 ‘대학에서의 교양교육 역할, 교양교육 역할 재정립을 위한 대학의 노력, 대학교양에 실용과목 도입 고려, 대학의 교양대학 설립’, 2020년대 토픽은 ‘대학 간 교양교육 교류, 한국교양기초교육원 교양교육컨설팅 결과, 교양교육으로서의 ESG경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대학 교양교육의 정의와 역할,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교양교육컨설팅 기준, 새롭게 요구되는 시민역량 반영 등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주제어] 대학 교양교육, 뉴스기사, LDA, 토픽모델링, 연구동향

*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eunj1202@naver.com

I. 서 론

교양교육은 정체성 확립, 실천력 함양, 의사소통 능력 강화, 융복합적 지식 확충, 인격 형성 등의 목적을 가진다(황지원, 2012).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융복합적 창의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융복합적 역량과 종합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데 교양교육은 큰 역할을 한다(홍석민,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양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우선 기초학문이 위기에 처한 것과 같이 교양교육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정연재, 2021). 대학이 전문직업교육, 즉 전공교육에 치우치고 있어 교양교육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희석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공 공부만으로는 인재가 되기 어렵다. 기술진보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양교육에서 다루는 지식과 방법론이 필수적이다(김준환, 2023).

또 다른 측면에서 대학의 교양교육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다. 현재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해 컨설팅 사업을 시행 중이며 그 과정에서 핵심 역량을 기준으로 교양교육을 평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손종현(2022)은 대학 교양교육제도의 목적은 교양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책임감을 가진 자유시민을 양성하는 것임을 언급하며, 교양교육을 통해 학생의 핵심역량을 키우는 것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력을 키워야 함을 주장했다. 교육력은 교수의 코스웍기획, 행정지원, 평가 및 환류로 구성된다. 교육제도는 교육역량인 교육력을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이지 경제논리라 볼 수 있는 핵심역량을 직접 겨냥하여 이를 키우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손종현, 2022). 김치완(2022) 역시 역량기반 교양교육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정부 주도의 평가와 그에 의한 재정 확보가 위주고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양교육 질 제고를 위해 자율성 보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교양교육 진단요소로 ‘핵심역량’

을 활용하는 것에 교양교육 평가 담당자 및 교수자의 약 절반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판단한 연구 결과가 있으며(김혜영 외, 2022), 핵심역량이 교양교육의 정체성 확립 및 정상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을 언급한 선행연구(백승수, 2020) 역시 존재한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학 교양교육의 현황 및 향후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조명해볼 필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교양교육에 대한 시대별 이슈, 사회적 관심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봄으로써 교양교육 개선 및 발전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은 공공이슈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할지 결정하고 특정한 정보를 보편적인 정보로 전환하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잠재적 이슈를 끄집어내어 여론 조성을 이끄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박성태, 2011). 따라서 언론이 다루어온 교양교육 관련 토픽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대학 교양교육이 놓치고 있는 핵심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이미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 이슈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접근하여 시간 흐름에 따른 토픽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회가 대학의 교양교육에 기대하는 바와 이에 대한 대학의 노력 등을 파악할 수 있고 관련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 교양교육 관련 뉴스기사의 토픽은 무엇인가?

둘째, 시간 흐름에 따라 토픽에 변화가 있는가?

셋째, 도출된 토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학술 논문의 연구 동향 분석은 일부 이루어진 바 있다(심상길, 2023; 홍예주·이유리, 2023; 임희주, 2022; 박진희, 2023;

임연정, 2023). 그러나 대부분 학술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언론에서 다루는 대학 교양교육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학 교양교육 동향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학술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 방법적 측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논문을 직접 읽고 범주화하여 분석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이다. 연구 방법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동향 연구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교양교육에 포함되는 특정 영역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교육(이유정, 2022), 교양수학(심상길, 2023), 글쓰기(고혜원, 2022), 교양영어(하명애, 2017; 박은희, 2021), 무용(홍예주·이유리, 2023), 인성(김준성, 이정아, 2022) 등의 영역별 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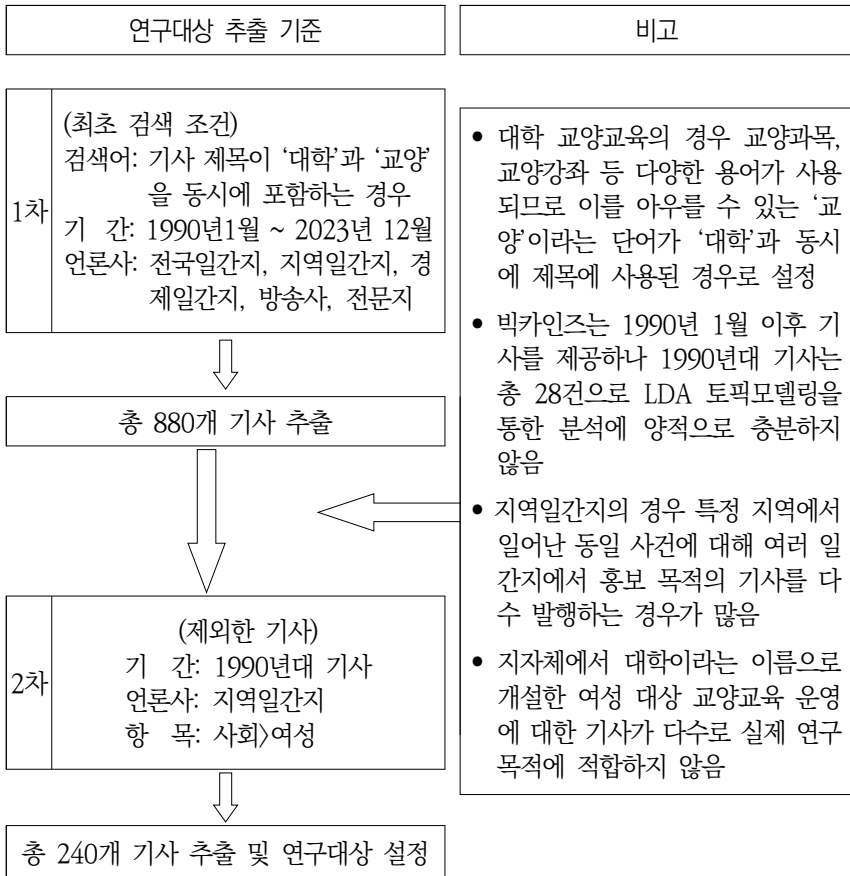
특정 영역이 아닌 교양교육 전반에 대한 동향을 분석한 연구를 일부 찾아볼 수 있다. 고지민, 박한샘(2020)은 대학 교양교육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장 활발히 연구된 주제어는 글쓰기로 나타났고 교육과정 관련 연구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역량 관련 주제어가 부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민 외(2020)는 교양교육연구 학술지 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주제어 분석 결과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글쓰기였으며 글쓰기, 대학, 융복합교육, 창의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력능력 등이 중심성을 보였다. 김정민(2020)은 교양교육 관련 질적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는데, 스포츠, 무용, 요가 등과 같은 신체적 체험교육 학습효과 검증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건의 연구 중 앞서 언급된 두 건의 연구는 연구 방법 측면에 있어서 텍스트마이닝 기법 중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의 경우 중심이 되는 키워드, 그리고 그와 연관성을 가진 다른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주제어들 간 연관 및 연계 방식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반면 본 연구의 경우 대학 교양교육과 관련된 광범위한 뉴스기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토픽을 추출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문서를 토픽별로 유목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연구 대상 측면에 있어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박지희·박지우, 2022)이 존재하나, 해당 논문은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언론에서 다룬 장기간의 교양교육 전반의 내용을 토픽모델링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과 희소성을 가진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대학 교양 관련 기사를 추출하였다. 검색 조건은 기사 제목이 ‘대학’과 ‘교양’을 동시에 포함하는 경우로 하였으며 기간은 빅카인즈가 제공하는 기사 중 가장 과거 연도인 199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하였다. 그 결과 880개의 기사가 추출되었다. 추출된 기사 검토 결과 여러 영역에서 연구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기사가 발견되었다. 우선 지역일간지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동일 사건에 대해 여러 일간지가 홍보 목적의 기사를 발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지역일간지를 제외한 전국일간지, 경제일간지, 방송사, 전문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지자체가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여성, 특히 주부를 대상으로 한 교양교육 운영에 대한 기사가 다수 발견되었다. 더불어 1990년대 기사 건수는 총 28건으로 LDA 토픽모델링 분석에 활용하기에는 충분한 양이라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기사가 분류된 항목을 기준으로 ‘사회>여성’으로 분류된 기사와 1990년대 기사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240건의 기사가 추출되었고 이를 연구대상으로 정하였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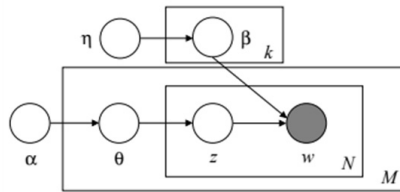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대상 추출 과정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학 교양 관련 기사의 토픽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문서에서 핵심 토픽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텍스트마이닝 기법에는 토픽모델링, 네트워크분석, 감성분석, n-gram 분석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방대한 문서 속에 존

재하지만 숨겨져 있는 토픽을 밖으로 끄집어내고자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LDA 토픽모델링은 문서별 토픽 분포, 토픽별 단어 분포 등을 확률적으로 분석하고 토픽을 도출한다.



[그림 2] Graphical model representation of smoothed LDA model
(Blei et al, 2003)

[그림 2]는 LDA에 기반한 토픽 분석 원리를 도식화 한 것이다. β 는 k 개의 토픽 내 단어 분포를 의미하며 η 는 해당 분포를 조절하는 하이퍼파라미터이다. θ 는 문서별 토픽 분포를 의미하며 α 가 해당 분포를 조절하는 하이퍼파라미터이다. θ 에 의해 특정 단어가 포함될 토픽(z)과 토픽별 단어 분포(β)를 함께 고려하여 단어(w)가 포함될 토픽을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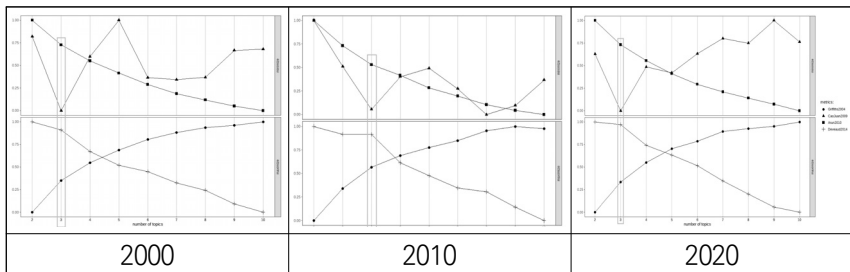
분석에는 R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빅카인즈 홈페이지를 통해 추출한 240건의 기사 본문에 대해 특수문자, 숫자 등 불필요한 문자는 제거하였으며 대학, 교양, 강의, 교육, 교양교육, 학생 등의 단어는 불용어 처리하였다. 위 단어들은 단순 빈도 분석 결과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미루어보아 잦은 출현이 당연시되므로 뚜렷한 토픽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기 어려우며 의미 있는 단어가 드러나지 못하게 방해할 우려가 있다. 이후 topicmodels R패키지의 LDA() 함수를 활용하여 토픽을 분석하였다. 그 전에 LDA() 함수에 적용 가능한 문서-단어 행렬을 생성하고, ldatuning R패키지의 FindTopicsNumber() 함수를 통해 얻은 수치를 활용하여 토픽 수를 결정하였다. LDA 토픽모델링 분석 시 토픽의 수는 연구자가 미리 지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방대한 데이터 속 토픽의 수를 미리 예

측하기 쉽지 않으므로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지수를 통해 각 지수가 기반으로 하는 이론이 최적으로 수렴하는 지점을 토픽 수 지정 시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tidytext R패키지의 tidy()함수 활용하여 토픽별 단어 포함 확률(β)과 문서 포함 확률(γ)을 구하였다.

IV. 연구결과

1. 토픽 수 결정

연구자는 LDA 토픽모델링 분석 전 토픽 수를 결정해야 한다. 토픽 수 결정을 위해 FindTopicsNumber() 함수를 통해 얻은 수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Arun et al.(2010)과 Cao et al.(2009)의 경우 수치가 최소화 될 때, Griffiths et al.(2004)과 Deveaud et al.(2014)의 경우 최대화 될 때 해당하는 지점이 적합한 토픽 수임을 의미한다. 또한 이전 혹은 다음 토픽 수의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이거나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전의 수치가 의미를 갖는다. 연구자는 모든 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토픽 수를 결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4개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년 토픽 수 3개, 2010년 토픽 수 4개, 2020년 토픽 수 3개로 정하였다.



[그림 2] FindTopicsNumber함수에 의한 지수

2. 토픽 분석 결과

대학 교양교육 관련 뉴스기사 분석 결과에 따라 토픽을 도출하였다. 토픽 분석 시 얻을 수 있는 β 값은 단어가 해당 토픽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토픽에 β 값이 높은 단어가 포함되어있다면 해당 토픽을 차별화하고 대표할 뚜렷한 단어가 존재하는 토픽이라 볼 수 있고, 다른 토픽들에 비해 높은 독립성과 배타성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단어가 사용된 문서의 맥락을 확인하지 않고, 단어만으로 토픽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연구에서 β 값과 γ 값을 함께 고려한다. 토픽 내에서 높은 β 를 가진 단어가 어떠한 문서에서 뽑힌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γ 값을 통해 토픽 포함 확률이 높은 문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해당 단어가 어떠한 맥락에서 토픽을 대표하게 된 단어인지 파악하기 용이해진다. 유주영(2022)은 특정 토픽에 포함되는 단어(β)와 문서(γ)를 분석해 적절한 토픽명을 부여했고, 조서연 외(2022)는 주제별 상위 확률값을 갖는 단어(β)와 원문(γ)의 성격을 동시에 검토하여 결정하였다. 손태권, 황성환(2020)은 문서의 토픽 할당 비율인 γ 값을 기준으로 토픽을 선정하였다. 이현숙, 이대영(2021)은 선정된 토픽 수 적절성 판단에 γ 와 β 를 함께 활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주요 단어(β)와 문서(γ)를 동시에 고려하여 토픽을 정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은 토픽은 <표 1>과 같다. 2000년대 토픽은 ‘대학 교양교육 부실 지적, 교양과목 다양화, 해외 대학 교양과목 국내 이수제도 마련’으로 나타났고, 2010년대 토픽은 ‘대학에서의 교양교육 역할, 교양교육 역할 재정립을 위한 대학의 노력, 대학교양에 실용과목 도입 고려, 대학의 교양대학 설립’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대 토픽은 ‘대학 간 교양교육 교류, 한국교양기초교육원 교양교육컨설팅 결과, 교양교육으로서의 ESG경영’으로 나타났다.

〈표 1〉 토픽 도출 결과 종합

연도	토픽	토픽(문서수)
2000	1	대학 교양교육 부실 지적(19)
	2	교양과목 다양화(17)
	3	해외 대학 교양과목 국내 이수제도 마련(21)
2010	1	대학에서의 교양교육 역할(24)
	2	교양교육 역할 재정립을 위한 대학의 노력(28)
	3	대학교양에 실용과목 도입 고려(45)
	4	대학의 교양대학 설립(34)
2020	1	대학 간 교양교육 교류(15)
	2	한국교양기초교육원 교양교육컨설팅 결과(18)
	3	교양교육으로서의 ESG 경영(19)

1) 2000년대 뉴스기사 토픽 분석

1번 토픽은 ‘대학 교양교육 부실 지적’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어는 ㅇㅇ대, 사회, △△대, 분야, 전공, 수업, 과목, 판정, 수준, □□대 등이었으며(〈표 2〉), 주요 문서는 대학의 교양과목 구성의 부적합성, 수업의 미흡함과 수준 제고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3〉).

〈표 2〉 1번 토픽 주요 단어

토픽	no.	주요단어	β	no.	주요단어	β
1	1	ㅇㅇ대	0.020439	6	수업	0.009444
	2	사회	0.010273	7	과목	0.009397
	3	△△대	0.009894	8	판정	0.008994
	4	분야	0.009877	9	수준	0.007629
	5	전공	0.009444	10	□□대	0.006296

〈표 3〉 1번 토픽 주요 문서

토픽	제목	γ
1	대학 교양수업이 백화점 문화강좌?	0.999772
	교양교육 붕괴된 대학 '知的 조감도'를 보라	0.999502
	명문대 교양교육 수준 미흡 학문 분야별 대학 평가	0.999399
	대교협 165개대 평가 대학 교양교육수준 미흡	0.999303
	대학 '교양교육' 소홀	0.999067

2번 토픽은 '교양과목 다양화'로 나타났다. 주요 단어는 교양과목, 강좌, 수강, 취업, 개설, 채택, 정보, 학점, 강사, 윤리 등으로 나타났으며(〈표 4〉), 주요 문서는 교양 과목에 다양한 내용의 강의가 포함되고 있음을 다룬 기사가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5〉).

〈표 4〉 2번 토픽 주요 단어

토픽	no.	주요단어	β	no.	주요단어	β
2	1	교양과목	0.011911	6	채택	0.005717
	2	강좌	0.011293	7	정보	0.00565
	3	수강	0.007948	8	학점	0.005321
	4	취업	0.007146	9	강사	0.005241
	5	개설	0.006905	10	윤리	0.004764

〈표 5〉 2번 토픽 주요 문서

토픽	제목	γ
2	사회봉사 '학점인정 넘어 교양필수로'	0.999801
	○○大 등 충북지역대학 취업 교양과목 봄	0.999432
	대학 교양과목 '인터넷 윤리' 채택 잇따라	0.999425
	IT과목 대학 '교양필수' 된다	0.999392
	부산국제영화제, 대학 교양과목으로 채택	0.99917

3번 토픽은 ‘해외 대학 교양과목 국내 이수제도 마련’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어는 영어, 개설, 운영, 학점, 프로그램, 참여, 수강, 미국, 외국, 국제 교양과정 등으로 나타났다(〈표 6〉). 주요 문서는 국내 대학에서 해외 대학 교양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표 7〉).

〈표 6〉 3번 토픽 주요 단어

토픽	no.	주요단어	β	no.	주요단어	β
3	1	영어	0.011556	6	참여	0.005547
	2	개설	0.008418	7	수강	0.005285
	3	운영	0.00807	8	미국	0.00524
	4	학점	0.007984	9	외국	0.005084
	5	프로그램	0.007396	10	국제교양과정	0.00416

〈표 7〉 3번 토픽 주요 문서

토픽	제목	γ
3	외국대 교양과목 국내 대학서 이수	0.999419
	○○대 등 4개대학, “국제교양과정” 개설	0.999362
	국내 대학서 외국대학 교양과정 이수	0.999338
	국제교양과정 국내대학 첫 개설	0.998995
	국내서 외국대학 교양과정 배운다	0.998839

2) 2010년대 뉴스기사 토픽 분석

1번 토픽은 ‘대학에서의 교양교육 역할’로 나타났다. 주요 단어는 사회, 프로그램, 전공, 능력, 영역, 개혁, 한국, 지식, 특강, 강화 등이었고(〈표 8〉), 주요 문서는 대학에서의 교양과목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표 9〉).

〈표 8〉 1번 토픽 주요 단어

토픽	no.	주요단어	β	no.	주요단어	β
1	1	사회	0.00932	6	개혁	0.006265
	2	프로그램	0.008041	7	한국	0.005941
	3	전공	0.007234	8	지식	0.005736
	4	능력	0.006605	9	특강	0.005648
	5	영역	0.006443	10	강화	0.005327

〈표 9〉 1번 토픽 주요 문서

토픽	제목	γ
1	대학교육에서 '교양'이란 무엇인가	0.999743
	교양교육 혁신 학문의 융합 가치 실천에 역점	0.999624
	수능 강의야? 대학 교양수업이야?	0.999604
	○○대학교, 교양교육-교수평가 강화해 도약 준비	0.999536
	교양교육 강화로 창의성키워 韓 日 대학 글로벌화 이뤄야	0.99946

2번 토픽은 ‘교양교육 역할 재정립을 위한 대학의 노력’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어는 개설, 인문학, 과목, 주제, 진행, 지원, 개최, 사회, 운영, 초청 등이었으며(〈표 10〉), 주요 문서는 대학이 교양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11〉).

〈표 10〉 2번 토픽 주요 단어

토픽	no.	주요단어	β	no.	주요단어	β
2	1	개설	0.010316	6	지원	0.008256
	2	인문학	0.010224	7	개최	0.007388
	3	과목	0.009768	8	사회	0.00614
	4	주제	0.009238	9	운영	0.005068
	5	진행	0.008384	10	초청	0.004885

〈표 11〉 2번 토픽 주요 문서

토픽	제목	γ
2	대학의 기업화가 부른 인문학의 위기 “10년 후 자유교양 교육 붕괴”	0.999503
	전국 ‘ACE대학’ 총출동 ○○대서 ‘교양교육 역할’ ACE포럼	0.999226
	시카고 신학대학원 ○○○ 교수 “교양과목 확대로 위기의 대학을 구해야”	0.819219
	○○대, 오는 16일 대학교육의 혁신과 대학교양교육 과제 심포지엄 개최	0.809756
	○○대 ○○○교양대학, 대학 교양교육 벤치마킹 모델	0.62305

〈표 12〉 3번 토픽 주요 단어

토픽	no.	주요단어	β	no.	주요단어	β
3	1	전국	0.007945	6	취업	0.00646
	2	금융	0.007702	7	기업	0.005806
	3	인재	0.00743	8	개설	0.005258
	4	총장	0.007065	9	실용	0.004542
	5	지원	0.00691	10	모색	0.004099

〈표 13〉 3번 토픽 주요 문서

토픽	제목	γ
3	‘진로탐색 대학교양 필수로 청년 적성 찾아준다	0.999621
	‘실용금융’을 대학 교양과목으로 금감원이 강사 교재 지원	0.998915
	한국TOEIC위원회, 대학 교양영어의 효과적 수업을 위한 평가 방안 세미나	0.998859
	‘실용’이냐, ‘교양’이냐 대학 개혁 어떻게?	0.998729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 교양교육 패러다임 확 바뀌야”	0.998412

3번 토픽은 ‘대학교양에 실용과목 도입 고려’로 나타났다. 주요 단어는 전국, 금융, 인재, 총장, 지원, 취업, 기업, 개설, 실용, 모색 등이었고(〈표 12〉), 주요 문서는 대학 교양과목에 진로, 금융, 교양영어에 대한 기업 세미나, 실용 등의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표 13〉).

4번 토픽은 ‘대학의 교양대학 설립’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어는 교과목, 운영, 인재, 개선, 프로그램, 양성, 진행, 우수, 강화, 개설 등으로 나타났다(〈표 14〉). 주요 문서는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단과대학 설립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표 15〉).

〈표 14〉 4번 토픽 주요 단어

토픽	no.	주요단어	β	no.	주요단어	β
4	1	교과목	0.012003	6	양성	0.008359
	2	운영	0.011166	7	진행	0.008303
	3	인재	0.009665	8	우수	0.008075
	4	개선	0.009048	9	강화	0.007146
	5	프로그램	0.008855	10	개설	0.006876

〈표 15〉 4번 토픽 주요 문서

토픽	제목	γ
4	○○여대, 교양교육 새 터전 ‘○○교양대학’ 설립	0.9995
	○○대 창의인재대학, 교양학위트랙 첫 학위자 배출	0.99944
	○○대 교양교육 대폭 강화, ○○교양대학 출범	0.99932
	○○대 기초교양교육대학, 제1회 연합교양캠프 개최	0.999176
	○○대, 국립대 최초 교양융합대학 신설	0.999144

3) 2020년대 뉴스기사 토픽 분석

1번 토픽은 ‘대학 간 교양교육 교류’로 나타났다. 주요 단어는 공유, 혁신, 학장, 주제, 수업, 운영, 과목, 변화, 공동, 협약 등으로 나타났으며(〈표 16〉), 주요 문서는 대학 간 교양과목을 공유하거나 교양교육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표 17〉).

〈표 16〉 1번 토픽 주요 단어

토픽	no.	주요단어	β	no.	주요단어	β
1	1	공유	0.016828	6	운영	0.011363
	2	혁신	0.013812	7	과목	0.009616
	3	학장	0.013222	8	변화	0.007212
	4	주제	0.013222	9	공동	0.006611
	5	수업	0.011405	10	협약	0.006611

〈표 17〉 1번 토픽 주요 문서

토픽	제목	γ
1	교양교육 혁신 ‘충청권 대학 한자리’ ○○대, 충청권 교양대학 학술 심포지엄	0.999617
	부산 5개대 교양과목 공유한다 ‘교양 공유대학’ 구축키로	0.999605
	교양교육 노하우 나누자, 신라대 ‘부울경 대학 교양교육 협력 포럼’	0.999476
	○○대-부산 경남지역 3개 대학, 교양교육 MOU 학술대회	0.99946
	○○여대 - ○○대 - ○○대, 대학 간 교양교육 상호 학술교류 협약 체결	0.999256

2번 토픽은 ‘한국교양기초교육원 교양교육컨설팅 결과’로 나타났다. 주요 단어는 개선, 컨설팅, 우수, 선정, 공유,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운영, 역

량, 노력, 기초 등으로 나타났으며(〈표 18〉), 주요 문서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교양교육컨설팅 결과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표 19〉).

〈표 18〉 2번 토픽 주요 단어

토픽	no.	주요단어	β	no.	주요단어	β
2	1	개선	0.036157	6	한국교양 기초교육원	0.012616
	2	컨설팅	0.032898	7	운영	0.012118
	3	우수	0.020611	8	역량	0.011099
	4	선정	0.017375	9	노력	0.009325
	5	공유	0.012616	10	기초	0.009301

〈표 19〉 2번 토픽 주요 문서

토픽	제목	γ
2	○○대학교, 올해 교양교육컨설팅 우수 개선 대학 선정	0.999593
	○○대, '교양교육컨설팅 우수개선대학' 교기원 TOP 10 선정	0.999538
	○○대, 2020 교양교육 컨설팅 최우수 개선대학	0.999533
	○○대, '2020 교양교육 우수 개선 대학' 선정	0.999482
	○○대,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우수 개선 대학 선정	0.999417

3번 토픽은 '교양교육으로서의 ESG 경영'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어는 사회, 경영, 개설, 가치, 확장, 과목, 사례, 총장, 기업, 수업 등으로 나타났다(〈표 20〉). 주요 문서로는 대학 교양과목으로 ESG가 다루어진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표 21〉).

〈표 20〉 3번 토픽 주요 단어

토픽	no.	주요단어	β	no.	주요단어	β
3	1	사회	0.019176	6	과목	0.00959
	2	경영	0.013953	7	사례	0.009302
	3	개설	0.012965	8	총장	0.008776
	4	가치	0.010631	9	기업	0.008638
	5	회장	0.010617	10	수업	0.007661

〈표 21〉 3번 토픽 주요 문서

토픽	제목	γ
3	특화 대학원 교양과목 개설 대학도 ‘ESG 바람’	0.999658
	‘○○의 ESG경영’ 대학 교양 수업 인기	0.999565
	○○의 ‘ESG 경영’ 대학 교양 과목으로 듣는다	0.999487
	‘○○ ESG 경영’ 대학 강의됐다 ○○대, ○○대 교양 수업 개설	0.99946
	○○○ 융합문명연구원, 20일 ‘융복합 시대와 대학교양교육의 미래’ 주제 심포지엄 개최	0.999396

V. 결 론

본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과 관련하여 뉴스기사가 다루는 토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학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전국일간지, 경제일간지, 방송사, 전문지 중 기사 제목이 대학과 교양을 동시에 포함하는 240건의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에는 R(4.2.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LDA 토픽모델링 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대 토픽은 ‘1) 대학 교양교육 부실 지적, 2) 교양과목 다양화, 3) 해외 대학 교양과목 국내 이수제도 마련’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토픽은 ‘1) 대학에서의 교양교육 역할, 2) 교양교육 역할 재정립을 위한 대학의 노력, 3) 대학교양에 실용과목 도입 고려, 4) 대학의 교양대학 설립’으로 나타났다. 2020년대 토픽은 ‘1) 대학 간 교양교육 교류, 2) 한국교양기초교육원 교양교육컨설팅 결과, 3) 교양교육으로서의 ESG경영’으로 나타났다.

대학 교양교육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고지민, 박한샘, 2020; 임수민 외, 2020)의 경우 논문들의 주제어, 그리고 해당 주제어와의 관련성이 높은 단어들을 분석하는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고 글쓰기, 교육과정, 수업만족도, 평가, 역량, 창의성, 의사소통능력, 영어교육, 인성교육 등의 주제어가 빈번히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교양교육 관련 동향을 분석했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와는 연구 대상과 분석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의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본 연구를 통해 선행 연구와는 다른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다. 언론에서 다루는 대학 교양교육의 토픽을 파악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분석할 수 있었음과 동시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슈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대학은 대학 교양교육에 해외 과목을 국내에 도입하거나 교양과목의 내용을 다채롭게 구성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대학 교양교육의 질적 관리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2010년대에는 대학에서 교양교육의 역할을 어떠한 방향으로 확립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요청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은 교양교육을 맡는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실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대에는 대학 간 교양과목 및 질적 제고를 위한 방법론을 공유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의 입장에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교양교육컨설팅 결과가 적지 않은 의미를 지

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이해 및 적용이 요구되는 영역을 대학 교양과목으로 다루어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주요 이슈에 대한 대처 능력 배양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주목해봐야 할 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학의 응답 측면이다. 2000년대 토픽 분석 결과, 다양한 내용을 교양교육에 담아내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토픽은 1) 대학 교양교육 부실 지적, 2) 교양과목 다양화, 3) 해외 대학 교양과목 국내 이수제도 마련으로 나타났다. 즉, 2000년대에는 양적 팽창을 이루고자 하는 방향성을 보였다 할 수 있다. 반면 2010년대에 들어서며 대학 교양교육의 정의와 그 역할에 대해 기저에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0년대 토픽은 1) 대학에서의 교양교육 역할, 2) 교양교육 역할 재정립을 위한 대학의 노력, 3) 대학교양에 실용과목 도입 고려, 4) 대학의 교양대학 설립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의 교양교육 역할, 대학교양에 실용과목 도입 고려’는 사회가 대학에 보인 관심이 기사화된 경우라 할 수 있고, ‘교양교육 역할 재정립을 위한 대학의 노력, 대학의 교양대학 설립’은 대학이 관련 내용을 사회에 알리고자 기사화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대학은 올바른 교양교육을 위해 목소리를 내었고 교양대학을 설립 및 운영하였다. 2021년 기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중 단과대학의 학사구조를 가진 곳은 38%에 이르며 이는 2012년 대비 24%가 증가한 것으로 대학의 수가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절대적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안현호 외, 2022). 교양대학을 설립한 국내 주요 대학의 교양교육 추세는 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교양교육 고유의 위상 제고, 효율적 교양교육의 체계 구축으로 볼 수 있다. 물론 2010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ACE사업을 비롯한 후속 사업들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대학 교양교육 동향을 살핀 선행연구들은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 연구와 차이가 있음에도 고지민, 박한샘(2020)의 연구 결과 2013년 이후 역량 관

런 주제어가 매개 역할자로서 부각된 것에 대해 대학별 인재상에 따른 핵심역량 도출 및 역량 강화 성과 분석 등에 의한 것으로 본 점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이는 정부 사업과 무관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은 모든 고민의 합으로 대학의 교양대학 설립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정리하면, 사회는 대학이 무엇을 교양교육이라 생각하는지, 어떠한 내용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하는지에 관심을 가졌고 실용교과가 교양과목으로 개설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대학은 교양교육 질 제고를 위한 여러 노력의 모습을 보였다. 대학은 단순히 전문기술을 습득하는 곳이라 할 수 없으며 인문학, 철학에 기반을 두고 통찰력과 지혜를 얻어 진리를 추구하고 이를 전문지식에 접목하는 실천의 장이다. 대학은 외부의 영향을 받는 중에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관심과 대학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교양교육컨설팅의 영향력이다. 2020년대 토픽 분석 결과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교양교육 컨설팅 결과’가 토픽으로 나타나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적지 않은 수의 기사가 대학들이 교양교육 컨설팅을 통해 긍정적 평가를 얻었다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관련 선행 연구 역시 다수 존재함을 고려할 때, 사회 및 각 대학이 교양교육 컨설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최병문(2021)은 개별 대학들은 대학역량진단평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컨설팅에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의 핵심역량과 교과목의 연계 요구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교양교육 컨설팅이 영향력을 가지는 만큼 교양교육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교양교육의 본질과 대학의 소리에 귀 기울여 평가 기준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이슈를 교양교육으로 다루어내는 부분이다. 2020년대 토픽 분석 결과 ‘교양교육으로서의 ESG경영’이 토픽으로 나타났다. ESG는 경영의 측면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이해하고 실행력을 갖추어야 실현 가능한

것이기에 교양교육에서 다루기 충분한 영역으로 판단된다. 김성희(2023)는 ESG의 교육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교양교육 이수 단위로의 개설 필요성을 주장했고, 전종희, 한승훈(2022)은 유의미한 ESG 교양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학생 인식 및 대학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교육적 방향 수립이 필요함을 밝혔다. 또한 장유정, 박현정(2023)은 대학에의 ESG 적용 필요성을 언급하며 교양교육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이슈이거나 모두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주제가 있다면 대학에서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관련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이 마땅하며 대학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ESG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며 ESG는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다. 향후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시민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영역의 역량이 있다면 대학은 지금과 같이 교양교육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언론에서 다루는 대학의 교양교육 관련 토픽을 분석하고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여 대학 교양교육 발전 방향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언론의 토픽이 되는 경우는 사회가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경우, 또는 대학이 교양교육을 위한 활동 및 결과를 알리고자 하는 경우, 혹은 양쪽 모두인 경우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가 대학 교양교육에 가지는 관심 영역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대학의 노력과 대학이 중시하는 영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 더불어 최근 대학 교양교육으로 다루어지는 새로운 영역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대학은 정부의 영향 아래 있게 되므로 자칫 본질 혹은 우선순위의 무언가를 놓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가 대학의 교양교육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항상 현재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시대별로 나타난 토픽을 통해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까지 사회가 보내는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토픽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대학이 교양교육을 위한 발전에 들이는 노력이 더 증가함에 따라 관련 기사 역시 늘어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대학을 향한 사회로부터의 메시지가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적은 메시지 속에서도 핵심이 되는 내용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비교적 장기간

의 뉴스 기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기사를 종류에 따라 분류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실제 기사는 ‘사실전달기사, 해설기사, 인터뷰기사, 비평, 사설, 칼럼’ 등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기사인지, 심층적 내용을 다루는 기사인지, 글쓴이의 주장이 담긴 기사인지 등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달리 분석한다면 더욱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지민 · 박한샘,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대학교양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0권 제15호, 2020, 849~875쪽.
- 고혜원, 「대학 교양교육에서 자기성찰적 글쓰기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교양학연구』, 제21호, 2022, 319~346쪽.
- 김성희, 「대학 ESG 교양교육의 방향」, 『지식과 교양』, 2023, 307~326쪽.
- 김정민, 「국내 교양교육관련 질적 연구 동향 분석」,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구 문화교류연구)』, 제9권 제4호, 2020, 91~114쪽.
- 김준성 · 이정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대학생 인성교육 연구 동향」, 『교양교육실천연구』, 제6권 제2호, 2022, 19~34쪽.
- 김준환, 「대학 교양교육은 국가와 산업 발전의 원동력...교양교육 활성화 지원도 국가의 역할」, 『한국대학신문』. 2023.08.06.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50917>
- 김치완,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역량기반 대학교양교육 현황과 과제 : 제주 대학교 2021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양학연구』, 제18호, 2022, 79~109쪽.
- 김혜영 · 김인영 · 지현배 · 전경애,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교양교육 평가 지표에 대한 문제 진단 및 제언」, 『교양교육연구』, 제16권 제6호, 2022, 11~25쪽.
- 박성태, 「사회 갈등적 공공이슈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연구: 정권교체기 보수와 진보언론의 교육정책 관련 보도태도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5권 제3호, 2011, 97~118쪽.
- 박은희, 「LDA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대학 교양영어 연구동향 분석」, 『교양교육연구』, 제15권 제5호, 2021, 169~183쪽.
- 박지희 · 박지우,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대학 인성교육 동향 분석 - 뉴스 빅데

- 이터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16권 제3호, 2022, 29~41쪽.
- 박진희, 「대학 교양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 동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3권 제21호, 2023, 789~811쪽.
- 백승수,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의 당면 과제와 개선 방향」, 『교양교육연구』, 제14권 제3호, 2020, 11~23쪽.
- 손종현, 「대학 교양교육 역량 진단의 대안」, 『교양기초교육연구』, 제3권 제2호, 2022, 41~75쪽.
- 손태권·황성환,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외 수학교육 평가 연구 동향 분석」, 『수학교육학연구』, 제30권 제4호, 2020, 601~624쪽.
- 심상길, 「대학의 교양수학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최근 10년간 발표된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7(4), 2023, 143~158쪽.
- 심상길, 「대학의 교양수학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최근 10년간 발표된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17권 제4호, 2023, 143~158쪽.
- 안현효·김영우·전용숙, 「시대 전환기에 제기하는 국립교양대학」, 『교양교육연구』, 제16권 제5호, 2022, 11~23쪽.
- 유주영,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적 이슈 분석: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언론 보도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제60권 제1호, 2022, 205~234쪽.
- 이유정, 「대학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과 대학교양교육의 방향과 과제」, 『교양교육실천연구』, 제6권 제1호, 2022, 119~136쪽.
- 임수민·윤희정·방답이,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교양교육연구』 동향 분석」, 『교양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2020, 11~32쪽.
- 임연정, 「국내 교양중국어 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한중언어문화연구』, 제68호, 2023, 159~184쪽.
- 임희주, 「대학 교양수업에서 플립러닝의 최근 연구 동향 분석」, 『인문사회21』, 제13권 제3호, 2022, 2379~2388쪽.
- 장유정·박현정, 「ESG 기반 기독교대학 교양교육의 방향성 모색」, 『생명

- 과 말씀』, 제35권 제1호, 2023, 227~256쪽.
- 전종희 · 한승훈, 「대학에서의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교양교육 사례 및 재학생 인식 조사 연구」, 『인격교육』, 제16권 제4호, 2022, 131~162쪽.
- 정연재, 「횡단적,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교양학 정립을 위한 역사적 접근-교양의 학문적 정체성 수립을 위한 가능성과 조건 탐구」, 『교양교육연구』, 제15권 제6호, 2021, 23~34쪽.
- 조서연 · 이수기, 「온라인 지역 뉴스 빅데이터와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지역사회 이슈의 시공간 분포특성 분석」, 『한국지역학회 후기학술대회 논문집』, 2022, 1~24쪽.
- 최병문,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컨설팅 사업」,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1.6, 2021, 450~455쪽.
- 하명애, 「대학 교양영어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언어연구』, 제33권 제3호, 2017, 453~476쪽.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양대학 설립 취지 및 기본방향」, 2014.4.15. https://builder.hufs.ac.kr/user/mrw/download/sub02_03_05.pdf
- 홍석민, 「4 차 산업혁명과 교양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교양교육과정의 개혁 필요성」, 『교양교육연구』, 제16권 제2호, 2022, 65~79쪽.
- 홍예주 · 이유리, 「대학 교양교육에서 무용 관련 연구 동향」, 『Journal of Sport and Dance Science』, 제3권 제2호, 2023, 143~154쪽.
- 황지원, 「교양으로서 철학교육의 위상과 필요성」, 『교양교육연구』, 제6권 제4호, 2012, 169~201쪽.
- Arun, R., Suresh, V., Veni Madhavan, C. E., & Narasimha Murthy, M. N., "On finding the natural number of topics with latent dirichlet allocation: Some observations." In *Advances in Knowledge Discovery and Data Mining: 14th Pacific-Asia Conference, PAKDD 2010, Hyderabad, India, June 21-24, 2010 Proceedings I* (14), Springer Berlin Heidelberg, pp.

391-402.

- Blei, David M., Andrew Y. Ng, and Michael I. Jordan.,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2003, pp. 993-1022.
- Cao, J., Xia, T., Li, J., Zhang, Y., & Tang, S., "A density-based method for adaptive LDA model selection." *Neurocomputing* 72(7-9), 2009, pp. 1775-1781.
- Deveaud, R., SanJuan, E., & Bellot, P., "Accurate and effective latent concept modeling for ad hoc information retrieval." *Document numérique* 17(1), 2014, pp. 61-84.

접 수 일 : 2024년 02월 01일
심사완료 : 2024년 03월 14일
게재결정 : 2024년 03월 19일

Abstract

Topic Analysis of News Articles Related to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Jeon, Eunjeong(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sought to gain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by analyzing topics related to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covered in news articles and identifying changes in topics over time. For this purpose, LDA topic modeling analysis was conducted on 240 related news articles. As a result, the topics of the 2000s were pointing out the lack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universities, diversifying liberal arts subjects, establishing a domestic completion system for liberal arts courses from overseas universities, and the topics of the 2010s were the role of liberal education in universities, universities' efforts to redefine the role of liberal education,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practical subjects in university education, establishment of a liberal arts college in universities, the topic for the 2020s was exchange of liberal arts educ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as a result of liberal arts education consulting at the Korea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ESG management as liberal education. According to these research results, the need to consider the definition and role of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the standards for liberal arts education consulting at the Korea Institute for Liberal Arts and Basic Education, and the reflection of newly required civic competencies was mentioned.

[Key Words]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news articles, LDA, topic modeling, research trends